



다솜<사랑>이야기

2004년11월6일 제 2호

펴낸이 : 교장 최미영

엮은이 : 교사 박은경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TEL : (408) 934-3600 FAX : (408) 934-1092

다솜 가족들에게

2004년도 어느 덧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먼저 해야 하는 저는 다른 분들보다도 먼저 다른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5년도 다솜 한국학교 행사를 계획하면서 지난 학기를 또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지난 10월 2일에 있었던 개교식이 떠오릅니다. 개교식은 우리 학교 역사에는 한번 밖에 없을 행사였기에 준비하는 마음이 매우 분주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더욱이 많은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선생님들은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영사님을 비롯하여 북가주 한국학교 협의회 회장 및 임원 선생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저희 학교에 대한 인상을 매우 활기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교로 표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 김선리/건오 부모님, 박미소/성현 부모님, 모크세스 부모님, 서동자 집사님, 김예린/현지 부모님, 최윤아/유진 부모님, 전은선 부모님, 왕지은/정은 부모님, 김수영 부모님
- ❖ 송수빈/유빈 부모님, 전효정 부모님, 방수진/수환 부모님, 영덕연 집사님, 전은선 부모님, 왕지은/정은 부모님
- ❖ 김명혜 집사님
- ❖ 최윤세 집사님



◎ 11월의 행사 및 광고

- ◀ 11월 6일, 20일 : 특활
 - ◀ 11월 13일: 교사회의, 아침 조회
 - ◀ 11월 27일 : 추수감사절 휴강
- ◁ 아침조회 : 월 1 회, 오전9시30분
(10/23, 11/13, 12/11, 1/15)
- ☺ 늦지 않도록 등교 지도 바랍니다.

☛ 기부금 안내 : 다솜 한국학교의 발전과 우리 2세들의 앞날을 위해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점심 봉사 학부모 서명

- 11월 전효정, 김대경/태연 부모님
- 10월 전은선, 황정은/지은 부모님
- 11월 이하나, 송수빈/유빈 부모님
- 12월 박미소, 박지혜, 셋모키 부모님
- 2월 홍소연/희연 부모님

점심 봉사에 서명해 주신 학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0 월

생 일 축 하 해 요

- 11/07 존 패터슨(성인반)
- 11/11 송수빈 (민들레반)
- 11/15 김하나 (민들레반)



추천합니다.

♪ 노래 : 밥 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번 학기 미술반은 일곱 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시간 식물 드로잉으로 시작한 저희 미술반은 드로잉을 위한 꽃과 나뭇잎, 열매를 채집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자연을 관찰하며 우리 학생들이 보이는 호기심과 감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학생들이 평소 해 보고 싶었던 의견을 반영하여 드로잉과 색채 디자인, 글래스 페인팅, 종이공예, 수채화등 다양한 재료를 접할 수 있는 특별 활동 시간이 될 것입니다.



< >



2 < >

저희 옥수수 2반은 김유신, 김유진, 박성현, 홍희연, 김태연, 김윤하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유신이는 유진이의 형으로 항상 유진이에게 모범이 되고 있고 유진이 역시 형에 못지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르는 척 단청 피우다 마지막에 외운 것을 잘 쓰는 성현이, 제일 먼저 손들고 하기 좋아하는 태연이, 부끄럼이 많은 희연이, 그림을 잘 그리는 윤하 이렇게 옥수수 2반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글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랍니다. 하지만 얼마나 열심인지 저희 반은 이번 겨울에 난방이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글을 한 자 한 자 배워 책을 읽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한 학기가 끝날 즈음이면 어떤 책을 읽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부만 신경 쓰는 옥수수 2반 학생들, 아자 아자 파이팅!!



< ... >

지난 10월 30일 토요일에는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지역 협의회 주최 제 5회 청소년 평화통일 웅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교에서 대표로 참석한 무궁화 반의 강수정 학생이 여예의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웅변대회의 원고를 이에 게재합니다.

강수정

제 이름은 강수정입니다. 저는 남가주에서 아빠가 유학생일 때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을 잘하였다고 합니다. 두 살 때부터 어머니께서 한마디씩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줄줄 외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의 저의 꿈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저는 몹시 아파서 늘 병원의 산소 텐트 속에서 지냈습니다. 수술을 해도 조금 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모, 고모 등 온 가족이 울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아빠는 역사학자의 꿈을 접으시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 나아서 이제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미라클 베이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억력이 좋은 저에게 세 살 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 등을 이야기해주시면 저는 덩달아 뜻도 모르고 외우고 다녔습니다. 인형을 사러 쇼핑 몰에 가서도 "너는 쇼핑보다 소말리아에 있는 친구들이나 조국의 뿌리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벤치에 앉아서 우리나라 지도를 몇 번씩 그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유신장군', 고려시대의 '삼별초의 난', '세종대왕', '오성과 한음'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금속활자가 독일의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더 빨리 발명되었지만 세상에 올 바르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에 많이 왜곡되어 알려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흥분하거나 고함쳐서 되는 일이 아니고 훌륭한 한국 역사가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16살이 되었고 나의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늘 이해하기 힘들었던 아버지의 말씀과 세계 속에 한국 역사를 알리며 학문으로 정립하는 큰일을 하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의 접힌 꿈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세계 속의 Korean-American이 되는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작년 한국 방문 때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에서 어렴풋이 북한 땅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은 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길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통일신라시대가 있었다면 어서 빨리 통일 한국의 날도 와야 되겠지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저의 친구들이 늘 한국인임과, 한국어, 한글을 잊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각자의 꿈을 성실히 펼친다면 이곳에서도 귀한 Korean-American의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요즘에는 늘 '세상 민족', '열방' 하시면서 중국, 한국, 남미, 아프리카 등을 다니시며 새 꿈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 세계를 품는 새 꿈 안에서 작은 제가 이제 날개를 펼칩니다. 오래 전 아빠가 접었던 그 꿈을 어린 제 꿈의 날개에 실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 한국과 세계 속에 우뚝 솟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그립니다. 저는 오늘도 가슴 벅찬 새 꿈, Korean-American의 꿈을 펼치며 세계로 향합니다.



<사진: 상금과 트로피를 받는 강수정 학생>